

### 불우이웃돕기 창구 상시운영

#### 200만원 모금, 50만원 전달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는 박노현 (주)용아섬유 대표이사가 50만원, 윤종하 골든자기방 가구 대표 10만원, 박영선 호남가구인향우회장 20만원, 호남가구인향우회 20만원, 포천신문 자원위원회 위원일동이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의 성금이 접수됐다.

지속적인 이웃돕기 운동으로 대경중학교에 채종빈 학생등 5명에게 각 10만원씩 50만원을 전달했다. 본지는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운영하여 모금된 성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오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자원위원회 안병호 총무가 지난 16일 오전10시 대경중학교 교정실에서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되찾은 活力으로 봉사하며 살아요”

### 늘푸른대학 민요반 성공적 운영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포천 시보건소에서는 노인분들의 흥겨운 민요가락과 우리가요 연습이 이루어진다.

포천시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대학 민요반은 80여명의 노인분들이 민요와 가요를 배우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민요반 강사로 나선 정이순(사)제29호 서도소리 의정부시지부장은 2006년도에는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포천시민들 앞에서 선보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지부장은 노인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했으나 갈수록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각종 노인위안잔치에도 찬조출연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여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자혜원에서 실시한 노인의 날에는 특별출연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같은 연배의 노인들과 즐겁고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 지부장은 “늘 노인분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정이순 지부장이 노인의 날을 맞아 자혜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며 “즐겁고 흥겨운 가락을 좋아하는 노인분들의 모습이 너무 반갑다”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늘 노인분들이 공부 할 수 있는 주5일제 노인대학을 만

들어 노인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으로 다른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싶다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내촌 내1리 경로당 한글학교 성료

### 지역주민 뜻모아 한글·노래 교육



내1리 할머니경로당에서 실시한 '어르신 호도공부방'에 참석한 노인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7일 오전10시 내촌면 내1리 할머니경로당에서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익히고 노래를 배우는 등 7월부터 실시해온 '어르신 호도공부방' 방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할머니들은 “왜정과 한국전쟁 등 시대적 혼란기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한을 이제야 풀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내촌면 내1리 할머니경로당 어르신 호도공부방은 내촌우체국 김순희씨가 1001번 버스 내촌 경유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가 서명을 할 줄 모르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가르쳐 주면 서명하겠다는 말에 한글교실을 개설하게 됐다고 한다.

이같은 취지에 공감한 김경순씨(40·내촌한얼교회)가 강사로 나서 한글교육은 물론 노래교육까지 하고 있다. 물론 무료봉사다. 지난 6개월 한글교육과 노래교육을 마친 할머니들이 이날 방학식을 가진 것이다.

방학식에서 할머니들은 그동안 배운 노래와 수화를 선보이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고 김경순씨와 보조강사인 김순희, 김미숙, 김재원씨 등은 할머니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내년 2월4일 다시 개강하는 '어르신 호도공부방'은 오는 2006년 7월에 첫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보조강사로 나선 김순희씨(본지 주부들에게가장 내촌면지부장)는 “어르신 호도공부방을 발전시켜 내촌노인대학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며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내촌면 내1리 할머니경로당 유재숙 회장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다”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며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호남가구인 향우회원의 밤

호남가구인 향우회(회장 박영선)는 지난 13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웨딩홀에서 '호남가구인 향우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재 포천 호남 가구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회원 및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3명의 신임회원소개와 회원 자녀 2명에 대한 졸업축하금 전달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박영선 회장과 윤종하 고문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본지가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지난해에 이어 성금을 기탁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호남가구인향우회는 지난 2001년도에 발족 5년째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

### 포천소방서 자혜원 봉사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지난 9일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자혜원에서 소방공무원과 소홀여성의용소방대원(여성대장 조민영)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북쪽봉사 및 청소 활동을 펼쳐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구급대원이 소방활동 중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을 체험하고 사랑의 손길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서장이하 전직원에 동참의식을 불러 일으켜 작년 1월부터 관내 나눔의 집 등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직원과 의용(여성)소방대원들이 매월 2회씩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산면 금현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자혜원에서 소방공무원과 소홀여성의용소방대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우리 동네를 말한 다 ㉟

신복면 신평1리 이장 지배근

## 상수도 문제해결로 식수난 해소

포천시 신복면 신평1리는 신북초등학교가 소재한 곳으로 인근에 신평공단과 문화재로 용연서원이 있고, 마을에는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등이 있어 산업화와 더불어 문화유산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신평1리는 공방과 돌모루로 나뉘어 불리고 있으며, 최초 2개반에서 최근 3개반 분리됐다.

신평1리는 12월 현재 34세대 74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 대비 인구를 살펴보면 한 가구당 평균 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신평공단 등 직장인들이 마을 인구의 70~8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마을 원주민은 150가구 3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988년부터 91년까지 4년간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난 2002년부터 다시 이장을 역임 현재까지 모두 8년간 이장을 맡고 있는 지배근 이장으로부터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지 이장은 최근 인구의 이동 현상을 경제상황과 관련해 설명했다.

“4년 전 마을세대수는 250여 가구에 불과했지만, 점차 인구가 증가해 현재에 이르렀다”며 “타지에서 온 주민뿐 아니라 지역 원주민까지도 인근 공장 등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을 제외하고 농사에 13호 정도만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 외는 상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지 이장은 “과거 신평리 일대는 고추재배단지로 유명했으나, 점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에 농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평1리의 마을 조직은 노인회(회장 김권호), 부녀회장(회장 이혜숙), 새마을지도자(권학수), 향우회(회장 김성진), 방방친목회(회장 이봉설), 개발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노인회는 65세 이상 노인 37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매달 정화운동으로 폐품을 팔고 봄·가을 폐비닐 수거 등을 통해 노인회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마을 청년회로서 자리하고 있는 향우회와 방방친목회는 총 60여명으로 각각 신북초등학교 출신과 외지인을 포함한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단체간 유기적



지배근 이장 신복면 신평1리

인 협조 속에 체육대회나 마을 잔치가 개최되고 있다. 신평1리는 연중 구정운 전후 한 척사대회, 여름철 마을 어르신 효도관광과 마을체육대회와 잔치 등이 개최된다.

올해 신평리는 마을안길 포장과 석축사업 등으로 마을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학교 뒷산으로 이달 중 1차 개통되는 4차선 도로로 인해 그동안 위험에 노출돼 있던 덩크차량 등 대형차량의 초등학교 앞 통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 이장은 “마을사람들은 학교 뒷산이 잘려나가 마을의 기가 끊어질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대형차량의 우회로 인한 안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평1리는 인근 공단과 대형 공장들로 인해 식수가 부족해 상수도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 이장은 “이미 공방은 상수도 계획이 잡혀 시행되고 있으나, 돌모루에는 계획조차 없어 식수의 고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포천시의 빠른 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신평리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을회관 등을 건립할 때 생김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 이장이 취임할 4년전 1천백만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1/2 정도 갚은 상태다.

지 이장은 “기관·단체 등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 마을표석 세우기 사업 등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돼 예상대로라면 내년이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을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의 동참 호소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완벽한 제품만을 고집하는 합지생산전문업체 장원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  
바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 한솔드라이합지 전문

각종 싸바리 BOX

합지 1천톤 항시 보유



**보유시설 시스템**

- 자동합지기
- 자동도무송기
- 수가공전문
- 반자동 도무송기
- 자동접착기 등
- ※ 합지1천톤 항시보유

